

한농공 화안사업단, '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' 활동

[이태호]



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28일 '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행사'를 진행하기에 앞서 다 함께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. 사진=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

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28일 화성방조제 및 화성호 일대를 대상으로 '내고향 물살리기'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.

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직원 및 지역주민, 어촌계 운영위원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.

행사 참여자들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아름다운 농산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방조제 준공탑 공원 및 사면구간 제초,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.

이와 함께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54곳에 설치하고 인명함 구조함 27곳에 대한 점검 및 화성호 내 불법 낚시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.

강원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단장은 "앞으로도 민관 합동 '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'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보전과 미관 개선에 기여하고, 보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이태호기자